

혁신도시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무산되나

클러스터 부지에 근린생활 시설 들어서게 규정 변경 어려워 지자체·관련 기관 민원 우려 심의 늦춰...도지사 공약 확대 차질

전남도의 '광역별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해남·강진·완도에 이어 나주에 설치하려던 공공산후조리원을 놓고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이 민원을 우려해 심의를 늦추면서다. 열악한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혁신도시 내 건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2일 전남도 혁신도시 지원단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나주시가 요청한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사업기간 연장' 안을 승인, 통보했다.

나주시는 애초 지난달 말까지 공동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들어서자 나주시가

람병원에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을 설치키로 했지만 의료시설 부지에 '근린생활' 시설인 산후조리원도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면서 내년 10월 말까지 사업 계획을 미루겠다고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나주시와 혁신도시지원단 안팎에서는 현행 혁신도시특별법 상 클러스터 부지에 병원이 들어서지 못하는데도, 지역민 편의를 고려해 의료시설 건립을 허용했는데 다시 클러스터 부지에 근린생활시설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하면 클러스터 용지보다 훨씬 비싸게 상업·근린생활용지를 구입해 상가를 조성한 상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 당시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을 연계시켜 산업·경제적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클러스터 부지를 상업용지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급했다. 클러스터부지는 3.3㎡당 평균 129만원에 공급된 반면, 일대 상업용지는 3.3㎡당 1000여만원,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3.3㎡당 600여만원 등에 공급됐다.

여기에 일대 상가가 현재 70% 가까운 공실률을 보이면서 몇 개월간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광고에도 임대인을 찾지 못하는 실정도 '근린생활시설'로 완화하는데 반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 번 예외를 두게되면 붓물 터지듯이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혁신도시에 설립

할 만한 병원이 많지 않아 '병원급 시설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토록 한 규정'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나주시와 혁신도시 발전위원회는 이같은 점을 들어 적극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데 머뭇거리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에도 차질이 생겼다. 전남도는 애초 지난 2015년 9월 해남종합병원을 증축해 들어서던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시작으로, 강진의료원(2018년) 1층에 2호점, 완도 대성병원에 3호점(2019년)을 낸 데 이어 올해 말 나주에 4호점을 내는 등 오는 2022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을 5개로 늘려 지역민들이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국 첫 시행 농어민 수당 583억 편성 블루투어 관광안내소 건립 등 5억 이상 신규사업 30개 추진

전남도 내년 예산 들여다보니 산품 전시·판매장과 카페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눈길을 끄는 신규 사업들이 적지 않다. 또 성과가 미흡해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된 사업들도 눈에 띄었다.

전남도는 내년에도 새롭게 추진할 5억 이상 신규사업으로 30개를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우선, 전남지역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적 상담 등을 진행할 노동권익센터를 운영기로 하고 관련 운영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노동권익센터는 기존 비정규직센터와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면서 전체 노동자로 업무 범위를 확대해 운영된다. 전남의 핵심 프로젝트인 '블루 에코노미' (Blue Economy)의 6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인 '블루 투어'를 홍보하기 위한 '블루투어 관광안내소' 건립에 6억 6700만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안내소를 통해 리아식 서남해안과 섬·갯벌·습지 등 천혜의 자연자원,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깃들어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홍보하는 한편, 지역 특

산품 전시·판매장과 카페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처음으로 농·어업인 24만6000명에 매년 60만원씩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기 위해 583억4900만원을 편성했고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 위탁 사업비로 18억9800만원을 반영했다.

반면, 기존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성과가 미흡한 사업 예산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삭감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삭감된 사업만 43건에 이른다.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은 애초 예산(7500만원)이 전액 삭감,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제기됐고 양식어장 청년고용 지원사업도(4억~8640만) 대폭 줄었다.

여성가족정책실실이 추진해온 ▲미혼남녀 만남 프로젝트(1500만~1200만원) ▲아동예방캠페인(1500만~1000만) 등도 성과가 미흡, 감액됐고 예술작품 멤버십 렌트사업(5000만~3000만),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1억5000만~1억),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6000만~4320만) 등도 예산이 삭감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소외계층에 전달할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광주시 동구 자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동구 설봉사 앞마당에서 지역 소외계층과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500kg 상당의 김장김치를 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내년 학교급식 1174억 지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 학생에게 570억원, 초·중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556억원, Non-GMO 식재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48억원이다.

전남도는 12일 2020년 전라남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학교급식에 1174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초·중 무상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관계자, 학부모, 도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급식 지원 단가와 범위 등 지원 기준을 정했다.

지원 규모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

연간 급식 일수는 어린이집은 250일,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는 190일이다. 1월 1식을 지원한다.

또 2019년 처음 시행한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의 경우 간장, 된장, 두부, 기존 3개 품목에, 급식현장에서 사용량이 많은 옥수수분과 식용유를 추가해 5개 품목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만성 적자에도 역대 연봉잔치”

정무장 시의원 “2호선 개통되면 적자폭 증가” 김점기 시의원 “음주운전 직원 처벌 솜방망이”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가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직원들의 음주운전 징계는 공무원 징계 기준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 속에서 적자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지만 음주 범위를 저지른 직원마저 솜방망이 처벌하고 있는 셈이다.

12일 광주시의회 정무장(민주·광산2)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14년~2015

년 367억원, 2016년 370억원, 2017년 355억원, 2018년 406억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또 2018년 영업비용은 약 1000억원에 비해 수익은 약270억원이며, 영업손실은 약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익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비용적 측면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광주시가 지원하는 금액도 지난해 약460억원에 육박하더니 올해는 500억원가량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정 의원은 “2023년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면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다”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 시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도 사장 등 임원의 연봉이 1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김점기(민주·남구 2) 의원은 이날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의 징계 문제를 지적했다. 최초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이면 공무원은 경징계인 감봉부터 중징계인 정직에 처하지만, 공사는 견책부터 감봉까지로 경징계에 그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공무원은 정직에서 강등, 공사는 감봉에서 정직으로 징계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 2회 음주 운전이면 공무원은 강등에서 파면이지만, 공사는 정직에서 해임이다. 음주 운전으로 상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공무원은 정직에서 해임, 공사는 감봉에서 정직이다.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면 공무원은 강등에서 파면, 공사는 정직에서 해임에 처한다.

김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공무원의 음주 운전 징계 기준이 강화됐는데, 공기기업인 도시철도공사는 낮은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대 컨소시엄, 빛그린산단에 산학융합캠퍼스 설립

전남대 컨소시엄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빛그린 산단에 산학융합캠퍼스와 기업연

구관을 설립한다.

전남대는 광주시,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그린카진흥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금형산업진흥회 등과 공동 구성한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에 응모해 지원대상으로 12일 최종 선정됐다.

전남대 컨소시엄은 2025년 6월까지 6년간 국비 120억원을 포함해 모두 399억

원을 투입, 광주 빛그린산단에 전남대 산학융합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설립한다.

전남대 정규학위 과정인 'AI기반 미래형 수송시스템 융합전공'을 이곳으로 이전해 교육·생산·교육·연구·문화 등이 어우러진 신개념 산업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신설하는 산학융합캠퍼스에서는 산학융합 연구·개발, 프로젝트 Lab, 연구개발(R&D) 인턴십, 비즈니스 Lab, 맞춤형 에로기술 지원 등이 펼쳐진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